

4·11 총선 돋보기

(7) 예비후보들의 별난 이력

5·18 사형 선고·세계 인명사전 등재 등 다채

4·11 총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의 별난 이력이 눈길을 끈다.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 후보가 도전을 냈는가 하면, 대학시절 총학생회장을 지낸 후보들도 많다. 한 국회의원 밑에서 보좌관으로 일했던 후보들도 있다.

최연소 이유미·최고령 국창근 나이차 40세

전남대·조선대 등 총학생회장 출신 6명이나

민주당 여성 갑 이유미(여·33) 후보는 23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광주·전남지역 출마 후보자들 중 최연소자다. 116명의 지역 후보자 평균 연령은 52.18세에 이른다.

장근(73) 후보다. 김 후보와 이 후보의 나이 차이는 무려 40세. 제4대 전남도의장과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국 후보는 담양·곡성·구례 선거구에서 정치적 재개를 노리고 있다.

속 신홍섭 후보는 목포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의원 보좌관 출신들도 있다. 이 중에는 한 의원 밑에서 일한 적이 있는 두 후보의 이력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의원의 보좌관을 맡았다. 김승남·김철근 후보 모두 박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는 것 외에 고홍 출신으로 고향도 같다.

이 밖에도 무소속 김종배 후보와 민주당 김경호 후보의 이력도 눈길을 끌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80년 5월 광주 민중항쟁 당시 시민·학생투쟁위원회 총위원장으로 마지막까지 도전을 사수하다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김경호 후보는 세계적 인명사전인 미국의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에서 발간하는 '후즈 후 인 더 월드'(Who's who in the world) 2012년판에 등재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4·11 총선 현장

정남준, 무소속 출마 선언

정남준 전 행안부 차관은 23일 "시민의 올바른 선택으로 당선돼 광주의 정치적 자존심을 살리고 싶다"며 무소속으로 광주 서구를 출마를 선언했다. 광주시 행정부시장의 역임한 정 차관은 광주시의 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지역, 저 선거, 이 당 저 당에 얼굴을 내밀며 자리를 탐하는 정치인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소리 없이 광주를 지켜가는 대다수 시민의 뜻을 받는 무소속의 길을 택했다"고 밝혔다.



김경진 "최저임금 준거지표 필요"

민주당 김경진 부구청장 예비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MB 정권 4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무현정부(10.64%) 절반인 5% 수준"이라며 "노사정 모두가 신뢰할 만한 최저임금 결정 준거지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최저임금 기준을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또는 중위임금의 50%수준(현행 30% 수준)으로 상향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하진 "만 5세 미만 무상보육을"

민주당 장하진 서구갑 예비후보는 23일 만 5세 미만 아동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부터 만 5세 이하 어린이·유치원 이용 아동에 대해 표준보육비용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며 "현행 정부지원 단가에서 표준보육비용 기준으로 확대해 이용자의 육아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갑길 "유류세 한시적 인하해야"

민주당 전갑길 광주 광산 갑 예비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 가계와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특히 "연일 천정부지리 치솟고 있는 유가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유가 안정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서민 가계와 중소기업 경영에 큰 고통을 안겨 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후보는 또 "유류세 인하를 한시적으로 추진해 서민과 중소기업이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버티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혜자 "복지 국고차등보조 확대"

민주당 박혜자 광주 서구 갑 예비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복지분야 국고차등보조율 제도를 현행보다 대폭 확대해 재정형편이 어려운 광주·전남지역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어 "현재 영유아교육·기초노령연금 등 3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국고차등보조를 복지사업 전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는 지방의 무부담급 비율감소를 통해 지방재정난을 완화시키고 지역 격차를 감소시키는 제도적 보완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석형 "국립 의료시설 절대 필요"

민주당 이석형 함평·영광·장성 예비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삼할관 질환이 사망원인 2위"라면서 "고령화로 환자 수가 늘면서 사회·경제적 비용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국립암센터와 같은 국가적인 의료시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장성 나노기술산업단지 일대에 국립삼할관 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호남지역 의원들과 연대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갑 "청년의무고용제 실시"

민주당 이상갑 서구 을 예비후보는 23일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공공기관 지역출신 채용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학 졸업생들과 대화에서 "청년실업은 양극화나 고용 없는 성장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벨기에의 로제타 플랫폼처럼 청년의무고용제를 도입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신입사원 채용시 해당지역 출신 인재들을 뽑는 채용할당제를 도입하는 식으로 청년실업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병록, 무소속 출마 본격 행보

민병록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예비후보가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민 예비후보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장한 마음으로 해남지역 단일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경선 후보를 사퇴한다"고 밝혔다. 민 후보는 이어 "해남 출신 후보자 난립에 따른 표 분산을 막기 위해 누군가 희생이 절실해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남출신 후보가 공천을 받으면 해남의 자존심을 지키고 지역 발전을 위해 불출마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0여곳 경선 않고 통합진보 후보 단일화

10여곳은 양당 후보 경선...호남은 아직 협상 진행안돼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총선 야권연대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경선 없이 통합진보당 후보로 단일화 될 가능성이 큰 지역이 10여 곳 정도 되는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또 후보 단일화를 위한 양당 후보 간 경선 지역은 영남을 제외하고 10여 곳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경기도에서는 고양 덕양갑(심상정 공동대표) 성남 중원(윤원섭 전 민중의 소리 대표)이 단일 후보 지역으로 점쳐진다. 반면, 수원 장안, 성남 수정, 광명 을, 인천·여주, 파주 등은 양당 후보 간 경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파주는 선거구 획정 결과 분구될 가능성이 커서 경선 없이 양당이 지역구를 나눠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변인이 출마하는 남동갑은 양당후보 간 경선이 치열해 경선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부산에서는 영도와 해운대기장갑이, 울산에서는 동구, 남구를, 북구 등에서 통합진보당 후보로 단일화가 거의 확정적이다. 울산 남구갑에서는 민주당 심규명 전 녹색에너지혁신시선포럼 대표와 통합진보당 조승수 의원 간의 경선이 확실시된다.

호남의 경우, 아직 구체적 협상이 들어가지는 않은 상황에서 통합진보당은 공개적으로 광주 2석, 전남 2석, 전북 2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광주 서울, 순천, 전주 완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순천의 경우 민주당이 한번 양보를 한 지역이어서 민주당뿐 아니라 통합진보당 측에서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광주 서울, 순천, 전주 완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순천의 경우 민주당이 한번 양보를 한 지역이어서 민주당뿐 아니라 통합진보당 측에서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반발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나 반발도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려다 국민의 하나로 뭉치려는 명령을 우리가 많은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공천관련 불법 적발땀 후보 자격 박탈"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공천과 관련해 어떤 불법도 있어서는 안 되며, 만약 어떤 일이 발생한다면 즉각 후보자격을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위원장은 "공천이탈로 정치 체신의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옷을 잘 입을 수 없다"면서 "오늘 구성하는 클린공천지원단을 중심으로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 보여 드립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분명히 강조하지만 새누리당의 목표는 총선 승리만이 아니다"면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우리의 아주 중요한 목표이며, 이는 클린공천을 위해

서도 꼭 필요한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와 함께 "비례대표 후보의 경우 심사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일부 언론에 몇몇 분들이 비례대표로 결정된 것 같이 보도해 혼란을 주고 있다"면서 "언론에서도 공천 보도는 신중하게 해 줬으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Title: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 모집. Includes details about course dates (2012.3.5), fees (₩360,000),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Hangeul/Hanwen Tutoring Course. Title: 漢字·漢文指導師資格 研修生募集. Includes details about course dates (2012.3.9), fees (₩350,000),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Nongseongdong Leaders' Home Real Estate Showroom. Title: 농성동 리더스하이 주택전시관. Includes floor plan detail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010-3625-6984).